

尹-韓, 오늘 독대 아닌 면담... '김여사 해법' 나올까

정진석 실장 배석 독대 성사 불발...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 논의 한 "쇄신 필요성·현안 논의"...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 확답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면, 당초 한 대표가 요청했던 형식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회동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쇠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정화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실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용산에서 정 비서실장을 꼭 배석시켰다고 했고, 한 대표도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 측 배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대표는 굳이 배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여권 쇠신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실의 쇠신을 바탕으로 당정관계를 재설정해 주도권을 쥐고 나간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국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해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친윤계 일각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의 탄핵 공세에 빌미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오히려 여권이 김 여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만 야당의 탄핵 공세도 막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친윤 지도부가 야당의 대통령실 공격에 '철벽 방어' 모드였던 것과 달리 당이 용산의 변화를 주도해나간다면 악화한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친한계는 이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도 '여당 내 야당'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한 대표가 선제적으로 김 여사 문제 해법을 촉구하며 예상 밖 큰 격차를 승리했다는 것이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여당 내 야당' 전략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를 '전략적 공존' 관계로 재설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친한계 핵심 인사는 이날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결국 우리로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전략적 공존'이 목표"라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야당에 맞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나아가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수평적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대표를 향해 "최소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면죄부"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해도 사측생의 각오로, 국민 뜻대로 하실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동은 김건희 여사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다음엔 기회를"...혁신당 "새롭게 뛰겠다"

한동훈·조국, 영광·곡성 낙선 인사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여야 대표들이 잇따라 낙선 지역을 찾아 다음 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불모지' 곡성에 후보를 내고 선거 전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곡성을 방문해 낙선한 최봉의 후보와 함께 인사를 다니며 "다음에 한 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보수 정당으로는 거의 최후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가장 먼저 곡성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전국 정당"이라며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9일 당 지도부와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박용두 후보와 함께 군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조 대표는 "10·16 선거는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선거공약은 당력을 모아 실천하고 지방 정치와 행정의 혁신 역시 포기하지 않고 새로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이어 영광으로 이동해 이번 선거에서 석패한 장현 후보와 낙선 인사를 이어갔다. 조 대표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해 지방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상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날 "낙선인사"를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8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10·16 곡성군수 재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9일 영광군 영광읍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곡성·영광에 군수 재선거 후보를 낸 혁신당은 이날 '낙선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국감 현장

전진숙 "이태원 참사 비대면 심리 상담 효과 의문"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에서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 대부분이 비대면 상담인 탓에 실질적 지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건이다.

이 중 약 80%에 달하는 5979건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고, 대면 상담은 1526건으로 20%에 그쳤다.

심리지원을 받은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구분된다. 심리지원은 대상 구분 및 거주지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로 나뉘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족의 경우 비대면 상담

이 1786 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며, 대면 상담은 240건(11.8%)에 불과했다.

부상자 역시 대면 상담 123건(11.1%), 비대면 상담 982건(88.9%)의 비율을 보였으며, 목격자도 비대면 상담 비율이 84.9%

(1,582건)로 대면 상담보다 훨씬 많았다.

비대면 상담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심리 돌봄에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참사 피해자에게는 대면 상담을 통한 깊이 있는 심리지원이 필요함에도 대면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언행에 각별히 유의" 집안 단속

의원들에 편지...민형배 '국감중 골프' 논란 언급 "국민 불신 사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민생행보도 예고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8일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월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 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지도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언제든지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의 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민생·실용 노선에 주력하면

서, 중도층을 파고드는 전략 등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물가 문제는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키워드로 하는 '먹사니즘 시리즈 현장 일장'을 본격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재보선 다음날 곧바로 민생에 방점을 찍은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지도부 회의에서 '짧은 안정법'(양곡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평창의 배추 농가로 달려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중도층 확보와 수권 정당 이미지 부각 등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